

목포 참조기 '퐁어 속 빈곤'

3년연속 퐁어 불구 유류비·인건비 올라 어민들 '적자'

3년 연속 전남 서남해역에서 참조기 퐁어를 이루고 있으나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조기잡이 어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9일 목포수협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체 위판액 758억4천500만원중 참조기가 424억1천900만원(55.9%)을 차지했으며 2008년에는 863억4천600만원중 348억800만원(40.3%), 2009년에는 858억2천300만원중 434억2천8백만원(50.6%)으로 최근 3년간 참조기가 전체 위판액의 50%를 기록했다.

하지만 참조기 퐁어에도 불과하고 일부 어민들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의 출어 경비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기잡이가 이뤄지지만 11월 중순이 지나면 조기가 월동을 위해 제주해안과 동중국해안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대부분 적자 어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민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어구를 고쳐서 조기를 잡는 안강망 어선들은 주차도와 제주해역으로 어업을 나가고, 이동하면서 잡는 유자망 어선들은 동중국해안까지 조업을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안강망의 경우

목포에서 소흑산도까지 약 5시간이 소요되지만 제주까지는 7~8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유자망의 경우에는 목포에서 동중국해안까지의 출어시간은 소흑산도보다 5배가 더 소요되는 24시간으로 이에 비해 유류비도 5배가 더 소모가 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또 동중국해안의 경우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어선들 어구를 마구잡이로 훼손시키는 등 각종 횡포가 심해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다는게 선주들의 주된 이유이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해 어획량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어 많은 경비를 감수하고라도 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연·근해 어선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유황 경유 면세유도 2008년 8 당 662.9원이었지만 지난해 12월은 685.9원으로 23원이 인상됐고 육지에서 조기 작업하는 인건비도 시간당 8천원에서 1만원으로 2천원이 올랐다.

선주들은 1항차 최소 5~6천만원의 어획고를 올려야 현상을 유지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95%가 2~3천만원 밖에 올리지 못해 빚은 더욱

■최근 5년 고유황 경유 면세유 가격 추이

2005년 12월	455.5원/ℓ
2006년 12월	451.4원/ℓ
2007년 12월	627.3원/ℓ
2008년 12월	662.9원/ℓ
2009년 12월	685.9원/ℓ

늘어나고 있다. 유자망 협회 및 수협 관계자들은 현재 목포의 경우 안강망 44척과 유자망(외지 선박포함) 45척 중 안강망은 40%가 연중 1천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적자를 보고, 유자망은 60%가 적자 조업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주 김모씨는 "참조기 조항이 좋아 수 억원씩 어획고를 올렸다가지만 일부의 이야기이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맨손 또는 적자"라고 말했다.

유자망 협회 관계자는 "제주·경상도 등 타지역은 연진과 물레 등을 보조하는 사업이 있지만 전남은 아직 없다"며 "어려운 선주들의 생계를 위해 조속히 보조사업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19일 현재 참조기 7척 1상자(135마리)에 13만원, 6척 1상자(100마리)에 27만원대의 소비자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함평 온크고니떼 '한낮의 여유'

겨울 진객 크고니떼가 19일 함평군 수봉면 목곡저수지에서 무리를 지어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다. 크고니는 천연기념물 제20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함평군 제공>

지원 없는 함평 '한옥 지원사업'

郡 "예산 없어"... 주민들 "조례제정 왜 했나" 원성

함평군의 한옥지원사업이 걸고 있다.

19일 함평 해보면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9년초 '한옥 지원조례'를 제정하고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에 규정한 2천만원을 지원하지 않아 지원을 예상하고 한옥을 지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반면 군은 민박지원 사업에는 지난 2008년도에 50동(1동당 2천만원)에 총 10억원을 예산편성,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함평군은 해보면 모평마을과 오두마을 등 2개 마을에 전남도 전통 한옥 마을 조성사업인 '행복마을 사업'을

통해 모두 36동의 한옥을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한옥 26동이 완공됐고 10동은 공사가 진행중이다.

함평군은 지난해 1월 '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보조금 및 융자금과 별도로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예산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하지만 함평군은 이들 한옥건립 가구에 대해 현재까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도·군비 지원을 예상하고 빚을 내서 일반 건축비의 2배 이상 드는 한옥을 건축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복마을 사업

이 박준영 전남지사의 역점 시책이어서 지난 6월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퇴임한 이석형 전 군수가 정치적 이유로 반대해 지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모평마을 주민 A씨는 "차라리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면 기대라도 안 할 텐데 예산지원을 예상하고 수천만원의 빚을 내서 집을 지었는데 무슨 꼴이냐"며 "주민보다는 정치적 이유를 앞세운 군의 행정 때문에 지원을 믿고 한옥을 지은 주민들만 속은 것이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조례는 제정했는데 재정 여건상 예산이 없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황윤학기자 hwang@

수산기술사업 목포지소 수산업경영인 신청 접수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 목포지소(소장 이황복)는 2010년도 수산업경영인 사업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사업소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산업경영인 평가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이상의 점수를 받은 적격자를 2월말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어업인 후계자는 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촌에 정착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전업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어업면허를 받은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해 경영하는 만 50세 이하인 사람 ▲선도 우수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어업인후계자 경력 5년, 또는 전업경영인 경력 3년 이상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사업으로는 어선어업, 증·양식업, 수산물가공이 해당되며 그동안 광물로 분류되었던 천일염도 식품으로 인정받아 올해부터 소금업(소금 제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061-280-1756)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술향 그윽한 해송숲으로 오세요"

신안군 증도 '천년의 숲 산림욕장' 개장

신안군 증도면 '함반도 형상'의 해송 숲에 산림욕장이 조성돼 새로운 관광 명소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은 20일 증도면 팽뚱어 광장에서 박우람 군수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년의 숲 산림욕장' 준공식을 개최한다.

신안군은 지난해 서남권의 대표적 휴양지인 증도 우전 해수욕장과 접한 해송숲에 5억2천만원을 투입해 산책로 10km, 시비석 8개소, 숲속의 교실, 체육 시설물, 휴게시설 등을 설치했다. 해송 숲은 90ha의 광활한 면적에 50~60년생 소나무 10만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해송 숲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섬의 특색을 살려 단순한 숲 속의 쉼터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숲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 증도 해송숲은 지난해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전남 천일염 '주부 모니터단' 운영

전남개발공사 위촉...제품 평가·홍보 활동

전남 서남권 대표 특산물인 천일염 판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부 모니터단'이 운영된다. 전남개발공사는 19일 천일염 가공 제품을 평가·홍보하는 '제1기 벨샷트 주부모니터단'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위촉된 주부 모니터단은 서울 3명, 경기 2명, 대구와 광주, 강원 각 1명 등으로 20~50대까지의 연령층으로 이뤄져 있다.

주부 모니터단은 천일염의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천일염 상품

홍보와 제품평가, 상품개발 및 프로모션 등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벨샷트 홈페이지(www.ppearlsalt.com)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천일염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앞으로 천일염사업뿐만 아니라 울퉁목 거북배, 관광기념품, 무안국제공항 면세점 등에 대해서도 '주부 모니터 제도' 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진돗개 우수 혈통 보존'

郡, 등록건 수정비용지원

진도군이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의 우수혈통 보존을 위해 등록건의 수정비용을 지원한다.

진도군은 "사업예산 1억원을 확보해 올해 1년 동안 관내 민간인 소유의 우수한 등록 수개와 암개가 교배해 자견 출산확인이 완료된 경우 5만원의 교배료를 수개 사육자에게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암개 사육자에 비해 소득창출이 부족한 수개 사육자의 소득보전과 진돗개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문의(061-540-6321)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光州日報 전남서부취재본부 (061-278-8111)

목포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함평 해남

본 부 장	이종태
	정은조 국장
	임영춘 부국장
	조완남 부장
	박현영 부장
	이상선 부장
	박희석 차장
	조익상 기자
	황윤학 기자
	김민준 기자
	김병관 기자

경찰교육의 명문

김재규
경찰학원의
합격신화는
계속된다!

원장 경찰학 박사 김재규

한번 등록으로 합격할 때까지
합격회원제(5년) | 1년 회원제 | 6개월 회원제
이론중합반 | 문제풀이반

최고의 시설
KPA 상급하우스 | KPA 독서실 | 무료 동영상실 |
무료 자습실 | 편안한 휴게실 | 체력단련실

광주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 062)236-3112 | 전남여고 후문 앞

제3종 (자동차 대인·대물)

손해사정사

농산물 품질 관리사

제1회 보험심사역

개강 2월 1일 *국비지원·고용보험환급
*농품사시험일 (평일반)
(2010년 5월9일) 주말반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상담 문의 **361-8110**
농성동 서구청앞 광주은행 2층

국/비/지/원

전기소방

자격취득
종 목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 실업자 및 계약제
- 대상 : 실업자 야간대생 등 - 개강 : 2월 1일
- 현재 접수 중, 선착순 00명
5개월, 주 5일, 1일 4시간(오전반, 야간반)
* 본원 방문하여 상담접수 바람

❖ 직장인 과정(국비 100% 환급)
❖ 산재장애인(무료)훈련수당 지급
❖ 특전- 병원, 호텔, 빌딩, 아파트 등 전기관리직
및 전기 전문 업체 취업보장

병역 특례
군 미필자, 군면제를 받는 병역특례
업체 / 취업알선(임명연기100%)

문의 ☎ 374-2404, 373-1959
건설전기기계학원

랜드3 공인중개사학원
http://kwangju.land3.co.kr

전국 최다 합격생 배출한 그학원 LAND3
2010년도 100% 합격보장!!

개강 **2월 1일** **국비환급 100%**

▶ 동영상 무료 전과목(연회원)
▶ 오프 노트 제공
▶ 교재무료 (기본서 6권 제공)
▶ 동영상 강의만(6과목)
(가입시부터 ~2010.8.31→ 290,000원)

민개공 3인방
- 박흥전 교수(개론)
- 강근호 교수(민법)
- 고상철 교수(공법)

LAND3 529-8838
합격의 새로운 이름
운임동 광암고기 옆 삼애신협 2층